



홀로그래피와 무문관

광(光)물리학의 첨단 응용분야로 레이저 입체사진술이라고 불리는 홀로그래피(holography: 그리스어로 '완전한'이란 뜻을 가진 'holos'와 '정보'라는 뜻을 가진 'gramma'의 합성어)는 실물 영상을 똑같이 재현하는 첨단 영상매체이다. 이 기술은 1960년대에 개발된 레이저(laser: '복사(輻射)의 유도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이란 뜻의 영어문구 머릿글자의 집합에 의한 합성어)라 불리는 특정한 빛을 이용해, 실물을 기록하고 다시 영상을 재생시키는 새로운 방식이다. 물론 입체감을 담은 사실적 기록으로부터 영상의 재생시 인간이 사물을 본다는 것은 빛의 반사에 의한 반응을 두뇌에서 인지하는 생화학, 물리적 반응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생생한 사실감의 전달은 빛의 반응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레이저에 의해 좀더 부연 설명을 하면,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된 원자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

에 있던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옮겨가면서 빛을 방출하는 양자역학(量子力學)적인 특성을 응용하여 아주 짧은 파장의 전자기파(電磁氣波)를 증폭하거나 발진하는 장치인, 레이저의 중요한 성질은 간섭성을 가지며 단색성을 나타내고, 강력한 가는 빛을 방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1839년 프랑스의 과학자 루이 자크 망데 다게르에 의해서 이차원 사진술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실물 재현의 유일한 사실적 기록방법을 발명했다고 믿었다. 그러다 1948년 영국의 데니스 게이브 박사가 전자현미경의 분해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생각해낸 삼차원 영상방법이 홀로그래피 기술이다. 사실 종래의 사진이 물체의 밝고 어두운 면의 분포만을 기록하는 반면, 홀로그래피는 파동으로서 빛이 가지는 모든 정보, 즉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축적하고 재생할 수 있게 돼 인류는 새로운 차원

박영재 교수의 첨단 과학과 불교



의 완전한 정보 재생 기술 단계로 도약하게 되었다. 한편 필자의 견해로는 남송 시대의 무문개(無門慧開) 선사(1700)의 공안 가운데 48칙의 공안을 골라 뽑아 재창한, 선종 최후의 공안집인 '무문관(無門關)'은 '선종'의 종지(宗旨)를 100% 재현할 수 있는 생생한 선적 체험의 정보가 담겨 있

무문관에 '염화시중' 등 선적 정보 풍성 선종 종지 3차원 홀로그래피로 보는 듯

다한 점에서 삼차원 홀로그래피에 견줄 수 있다. 그 이전의 선종문헌들은 이차원 평면사진술에 비교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비교를 위해 '무문관'과 그 이전의 선종문헌들을 대표하는 <백암록(鶴巖錄)>을 살펴보기로 하자. 선은 당 시대에 가장 창조적인 활력으로 넘쳐 있었지만 그 후 문화적 예술적인 면으로 발전되면서 북송 시대에는 차츰 회고적 풍조를 띄게 되었다. 그러다 남송 말

대로, 직설적이고, 제창적이고 참구적인 요소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무문 선사는 수행자 시절 '조주무자' 화두를 받아 6년간 씨름하다 대오(大悟)한 후 이 체험을 바탕으로 제자들의 근기에 따라 알맞다고 생각되는 몇 개의 화두들을 부파해 수행시켰다. 그러다 그것들이 어느덧 48개나 쌓이게 되자, 1228년 남송 이종(理宗) 황제의 즉위를 기념하여 이들을 한데 모아 평창(平唱)과 송(頌)을 덧붙여서, 선 수행의 지침서로써 '무문관'을 엮게 된 것이다. 그는 이 저술 속에서 '염화시중', '외도분발', '가심할간' 등의 제창을 통해 석가세존과 그 제자들의 깨달음의 정수를, '불사선악', '비공비비'의 제창을 통해 육조해능 선사로부터 비롯되는 조사선의 전통을 계승한다. 그리고 '천녀이혼', '노봉달도' 및 '우과창령'의 제창을 통해 조법연 선사로부터 비롯되는 간화선 수행체계를 계승함과 동시에 '조주무자' 공안의 완결을 통해 간화선 수행체계를 완성, 선종의 종지를 100% 보존하였다.

끝으로 무문 선사는 무문자에서 다음과 같은 계승을 통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바르게 수행하면 대자유인으로의 길이 있음을 제시한다.

대도는 무문으로 천가지 길이 있으나(大道無門 千差百路) 이 관문을 통과하면 천하를 독보 하리라.(透得此關 乾坤獨步)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ypark@ccs.sogang.ac.kr

어른부터 바른모습 보여야

심각한 청소년문제 국내 초등학교생 53.1%가 가솔 충동을 느끼고, 여중생 40.1%가 성형수술을 희망하며, 여고생 5.6%가 낙태경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 발표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김화중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6일부터 한 달간 초중고생 1만9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밝힌 '초중고생 정신건강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생 4천899명의 10.8%가 흡연 경험이 있고, 남학생의 46.3%, 여학생의 32.9%가 음주경험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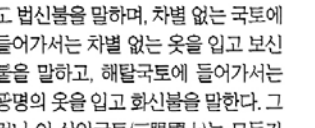
이뿐만 아니다. 중학교 남학생의 32.2%, 여학생 55.7%가 가솔이나 자살충동을, 남학생 1.3%, 여학생 0.9%가 운락가에 출몰해 본 경험이 있고, 고등학교 남학생의 33.7%, 여학생 71.6%가 성형수술 충동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 되면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비뚤어진 어른들의 모습이 곧 청소년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졌다는 점이다. 청소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

■ 다섯 가지의 잘못을 범했을 때 꾸짖을 것이니, 믿지 않음, 게으름을 피움, 욕심함, 부끄러움을 모름, 나쁜 벗을 가까이함이다. 다섯 가지의 꾸짖는 법이 있으니, 함께 말하지 않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가려서 가르쳐주지 않음, 그가 바치는 것을 받지 않음, 착한 일을 칭찬하지 않음, 의지가 되어 주지 않음이니라.

<근본설일체유무비나아잡사>
■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은 응당 세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널리 배워 온갖 욕정과 어질음을 지남이요, 둘째는 세간 출세간의 온갖 연음으로써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따라 번뇌가 없음이요, 셋째는 파괴됨이 없어서 부처님이 설하신 대로 실천함이다.

나는 그대들과 더불어 깨닫고 묘한 국토에 들어가서는 청정한 옷을 입고 법신불을 말하며, 차별 없는 국토에 들어가서는 차별 없는 옷을 입고 보신 불을 말하고, 해탈국토에 들어가서는 광명의 옷을 입고 화신불을 말한다.



그러나 이 삼안국토(三眼國土)는 모두가 의지하여 변하는 것들이다. 경론가(經論家)라면 법신을 근본으로 삼고 화신과 보신을 응용으로 여기겠지만, 나의 견해에서는 법신이라 하더라도 법을 설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옛 사람이 말하기를, '불신(佛身)은 뜻에 의지하여 세워지고, 불국토는 바람에 의지하여 논한다'라 한 것이다. 법성신과 법성토가 만들어진 법이며 의지하여 통하는 국토로서, 빈 손에 누른 잎사귀를 쥐고서 어린 아이를 속이는 짓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가시법불의 바른 뼈다귀 위에서 무슨 즙을 찾느냐? 마음 밖에도 법은 없고 마음 안에도 법은 없는데, 무슨 물건을 찾는가?



다'고 하고, '뜻으로 헤아릴 수 없고 말의 길이 끊어진다'고 하고, '생각을 움직이고 입을 열면 벌써 어긋났다'고 하고, <금강경>에서는 '모양으로는 여래를 볼 수 없다'고 하고, 임제는 '입을 열 수도 없고 발을 디딜 곳도 없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② 불법은 없다

우리는 도나 법이니 실상이니 실재니 진여니 진리니 마음이니 불성이니 자성이니 하는 등등의 말을 사용하여 공부할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우리는 어떤 이름을 붙일

마른 가시덤불서 무슨 즙 찾나

다'고 하며, '실상(實相)은 무상(無相)'이라고도 하고, '법은 머무름이 없다'고도 하며, 노자는 '도는 현묘하여 도를 도라고 하면 어긋난다'고 하고, 장자는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없고 주재자(主宰者)도 없다'고 한다.

이러는 것들을 통하여 추리고 결정 한 뒤에 행동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의 삶 대부분은 이런 헛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이처럼 허깨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공부란 결국 이런 공허한 허깨비의 삶을 벗어나 나 순간순간 진실하고 실재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노력이다.

그러므로 공부의 출발은 우선 헛것인 이름과 생각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다. 도를 실제로 경험하는 기회를 맞으면 이름과 생각은 저절로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과 생각이라는 헛 것조차도 도의 경험을 벗어나 따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깨닫게 된다. 도 위에서만 이름도 생각도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도이다.

김태환 · 부산대 강사, 철학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불교를 믿는 목적
What is the purpose of believing in Buddhism?

Buddhism is a religion practiced through one's own pure will and effort. It is not concerned with saving people through subservience to an Absolute Being. Rather, it is concerned with helping people to save themselves.

Believing in Shakyamuni Buddha's enlightenment, one devotes oneself to practicing and to also gaining enlightenment and so to helping all being. Thus, with wisdom and compassion we can help to make a world where all can live in equality and peace. This is the goal of Buddhism.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고, 수행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 힘쓴다 또한 다른 모든 존재들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돕는다. 지혜와 동정심으로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동등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만세력이 필요없는 책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출생년월일시를 물을 필요없는 책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응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식을 판단해주는 비서!

육임은 사람을 밝히는 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五術之中帝王」이요, 「神示」라고도 합니다. 오행(五行)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장만 배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차례대로 오거나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물러 오더라도 각기 다르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개운 될 것인지, 이사하면 언제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무능인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 男-女 관계인지 女-男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뺄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땅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법(천도 시식 국 부적)을 행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을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기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몇날 몇시에 태어날지
- 경기 승부여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난 사람이 울지 말지 언제 오게 될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잡힐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찾을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은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는지 낮은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갈 것인지
- 무엇을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 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는 비 바람이 몇날 몇시부터 오고 볼 것인지
- 등등 인간사의 모든 길흉성부를 즉시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둑을 잡아 주십시오
도둑놈들이 책을 대량 복사해서 팔려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본 책을 개인이 판매하려 다니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부산지사에서 전화주문으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개인이 찾아와서 저와의 연고를 빙자하면서 이 책을 싸게 사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을 조직적으로 대량복사 했거나 도용인해하여 팔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본이 아닙니다. 이렇게 책을 구입하셨거나, 개인이 찾아오거나 전화해서 책을 사라고 하는 경우를 겪으실때는 바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인적사항과 인상학의를 함께 알려 주시면 본책을 한걸 드리거나 현금 1백 50만원을 즉시 사해하겠습니다. 저는 이책을 쓰기까지 치자식을 할땀겨 뺀다고 7년을 산속에서 신음 했습니다. 또,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 이 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2년여에 걸쳐 이 책이 신봉하기로 걸음이 되어 활인천원동자 제위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로서 저는 가히 7년의 산생활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꾀원치한 자들이 저의 책 설명 강의를 몇몇듣고 저로부터 육임을 배웠다고 자칭하면서 마치 저와의 인연이 깊은양 말하고 다니며 제가 쓴 책들을 대량 복사하여 조직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이 고충을 심문 이해해 주시고 이 사람들을 바로 살게 하는데 협력하여 주십시오. 저의 직통 전화는 02)996-3335입니다. 호사 배상

사주나, 기운이나, 주역이나, 허락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이 책 그날치 한장의 시간만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圖)를 말하나, 구체적인 불음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활인천원(活人天圓)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위급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와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땅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입시 선거 구매 승진 때에 입시 가솔 동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천원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염행록(炎行錄)의 냉천수(冷泉水)같은 것입니다.

바인더차트 每一式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500,000(휴대용) ● 호사 육임강의록 ₩300,000 ● 강의신청 「육임학당호사숙」 02-998-8683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300,000(좌정용) ● 호사 육임비디오 강의수강(총 28개) ₩900,000 ● 각종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서울강남지사 02-2203-4805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